

# 구름 관중에도 無사고 ‘안전박람회’ ‘김영환 고문’에 빛바랜 한중수교 20주년



## 국정원·경찰·해경, 대테러 철통 보안 조직위, 혼잡예측시물레이터 적용 한몫

여수세계박람회가 폐막 1주일여를 남겨두고 하루 20여만명의 관람객이 몰려오고 있지만 큰 사고 없는 ‘안전 박람회’로 치러지고 있다.

이처럼 사고가 없는 것은 조직위와 국가정보원과 경찰·해경이 대테러 작전에 돌입하는 등 안전 지킴이로 나섰고 박람회장 혼잡도를 예측해 안전 관리를 돕는 ‘회장운영 시물레이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박람회 조직위는 “하루 최고 27만명이 찾아오는 등 박람회장에 연일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지만 최근 안전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난달 말 3일간 하루 27만을 기록하는 등 하루 평균 17만명의 구름관중이 몰리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혼잡예측 시물레이션의 공이 크다고 설명했다. 혼잡예측시물레이터는 전자 태그(RFID)

입장권과 연계해 하루 예상 입장객 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박람회장 내 주요 전시관과 보행로 등의 혼잡도를 사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각 전시관이나 보행로 상황이 비상 1, 비상2, 일상 등으로 상황 등급이 예측되면 해당 상황에 따라 관객 입·퇴장, 청소, 소방, 의료 등 회장운영 각 분야 업무의 강도 조절, 개선·보완 등 즉각적인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

또 박람회장이 바다 위와 해변에 조성돼 있어 익사 사고도 예상됐지만 해경 보트가 수시로 박람회장을 돌며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있고, 경찰도 테러와 비상사태에 대비해 박람회장 인근에 임시 지구대를 설치한 것도

안전 박람회를 이끌고 있는 비결이다.

박람회장 안팎에서 맹활약 중인 1만3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도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돕는 일등 공신이다.

조직위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박람회장 내 중앙의료센터를 갖추고, 더위에 지친 관람객에게 수액 처방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또 박람회장에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과 분무(噴霧)시설 등 완터가 충분히 마련한 점도 폭염 속 사고를 막아 주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 이색 공연 만끽

5일 휴일을 맞아 여수세계박람회장에 10만여명의 관람객이 몰려 박람회가 선사하는 이색 공연과 전시를 만끽했다. 폐막을 앞두고 수십만명의 관람객이 몰려오고 있지만 조직위와 경찰 등의 신속한 대처로 큰 사고 없는 박람회로 치러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24일 서울·베이징서 리셉션... 규모 축소 중 묵묵부답에 외교갈등 장기화 가능성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가 중국 당국에 의해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중 수교 20주년 행사가 빛을 잃고 있다.

양국은 20년 전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한 24일을 전후로 서울과 베이징에서 다양한 공동 행사를 잡아놓았지만, 김씨 고문 파문으로 한중 관계가 급랭하고 있어 축제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이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공동개최하기로 한 외교·안보·경제·문화 행사는 40여건에 달한다.

상당수 행사는 양국 수교일인 이날 24일을 전후로 배치돼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24일 ‘수교 2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성환 외교장관 등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초청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이날 말(날짜 미정) 베이징에서 중국의 고위급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수교 20주년 리셉션을 갖는다.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는 ‘한중 우호주간’으로 중국 현지에서 축하공연과 영화제 등 문화 행사가 열린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전기고문과 구타 등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 반중 감정이 확산하고 있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행사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특히 정부 고위급이 참여하는 행사는 참석 인사의 급이 낮아지는 등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당국이 김씨 고문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한중 외교대립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3일 “중국에 관련 법질서에 따라 합법적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문명적이고 인도적으로 대우해왔다”며 고문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우리 정부는 김씨의 귀국 후인 지난달 23일 천하이(陳海) 주한 중국대사관을 불러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아직도 중국 측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영환씨는 3일 국회를 찾아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인권포럼 초청으로 국회를 찾은 김씨는 중국 고문안건에 금류권 114일간 아파한 고문이가해졌는지에 대해 담담히 털어놓았다.

그는 전기고문과 관련해 “50cm 크기의 곤봉에 전선을 감고 가슴과 등 부위에 5~10초씩 댔다”며 “하루씩 집중적으로 전기충격을 가했다”면서 “상당히 전기 소도량이 높아서 큰 전기를 계속 갈아가면서 했다”고 회상했다.

/연합뉴스

## 35개국 수감 한국인 1600여명 영사 면담

외교부, 인권실태 조사

외교통상부가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 고문 파문을 계기로 35개국에 수감된 우리 국민 1600여명 전원에 대한 영사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 내에 수감된 우리 국민 625명에 대한 일제 영사

면담은 물론이고 중국 외 국가에 수감된 국민에 대해서도 영사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상 수감자 면담은 각국 현지 공관의 사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며 “지역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세계 곳곳에 수감된 우리 국민에 대한 일제 영사면담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김영환씨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기고문 등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외국민 인권보조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전원 영사면담 결과 가족 행위 등의 문제가 확인되면 상대국에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등의 엄중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시민과 소통’ 조호권 광주시의장

### 말바우시장 방문 상인과 간담회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장(사진)이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 의장은 지난 2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광주시 상인연합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의장을 비롯한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과 광주시 상인연합회 정중록 회장, 임원 등이 참

석했다.

조 의장은 간담회에서 “유럽발 글로벌 경제 위기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지만 대선과 런던올림픽의 들뜬 분위기에 가려 안타깝다”며 위기를 극복하려는 상인연합회 관계자를 격려했다.

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려와 관련, 영업시간과 영업제

한 일차 조정, 지역 재래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지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의회 차원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장은 지난날 취임 이후 시민사회단체 등을 방문해 소통에 나서고 있으며, 한미합작법인투자사업 ‘캠코’ 등 지역현안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오늘의 여수엑스포

한여름 더위를 식혀줄 엑스포 팝 페스티벌에 FT아일랜드, 제국의 아이들, 타이거JK, 윤미라가 초대됐다. 바다가 보이는 해상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박람회의 색다른 재미를 안겨줄 것이다.

△팝페스티벌-FT아일랜드, 제국의 아이들(특설무대·오후 8시)  
 △국가의 날-베트남(엑스포홀·오전 10시)  
 △가루야 가루야(천막극장·오전 10시부터)  
 △사과가 둥(천막극장·오전 10시20분)  
 △샌드메이커(천막극장·낮 12시)  
 △난타(천막극장·오후 4시)  
 △바다의 소녀(해상무대·오후 7시30분)  
 △빅오소(해상무대·밤 8시50분)

△여제의 관람객 수=9만2532명(이하 5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객 수=686만2054명

### 박람회 참가국 대표 전남 매력에 흠뻑

#### 45국 80명 관광지 팸투어

전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일본·중국·이탈리아·호주 등 45개국 80명의 각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이 지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는 ‘남도 관광지 방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관광지 방문행사는 남부와 북부, 중부 3개 방면으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권역을 선택해 전남지역을 돌아본다.

남부방면 참가자들은 순천만

에서는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을 배를 타고 둘러본다.

북부방면은 곡성 기차마을에서 레일바이크와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증기기관차를 타고 삼전강변을 달려보고 광양 청매 실농원에서는 유기농 매실 음식 만들기 체험을 한다.

중부방면은 담양 죽녹원에서 죽림유곡을 하고, 국내 슬로시티 1호인 창평 삼지내 마을에서는 한과를 직접 만들어 보고 맛보는 기회도 갖는다.

/오광록기자 kroh@

###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b>도산동(교회)</b> 대772㎡, 건786㎡ 감정가 9억5천 최저가 5억9천	<b>순천조계 (상가, 주차빌딩)</b> 대1136㎡, 건25647㎡ 감정가 43억1천 최저가 15억4천	<b>영양삼호 (근린시설)</b> 대777㎡, 건1152㎡ 감정가 4억4천 최저가 4억4천	<b>월곡동(원림빌딩)</b> 대1570㎡, 건24742㎡ 감정가 76억9천 최저가 27억5천	<b>치평동(일반음식점)</b> 대898㎡, 건2568㎡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6억1천	<b>화정동(예식장)</b> 대1094㎡, 건4489㎡ 감정가 41억5천 최저가 21억2천	<b>전주우이동(나이트)</b> 대1794㎡, 건33988㎡ 감정가 47억4천 최저가 19억4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b>금동(목욕탕)</b> ▷대지 91평 ▷건물 303평 ▷감정가 10억 ▷매매가 4억7천(협의후결정)	<b>광주 쌍안동(유형시설)</b> ▷대지 1520평 ▷건물944평 ▷감정가 89억7천 ▷매매가 40억 (협의후결정)	<b>담양금성(공장)</b> ▷대지 1482평 ▷건물 299평 ▷감정가 7억 1600만 ▷매매가 5억 (협의후결정)
<b>용동동(하이스포츠)</b>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사설비별도)	<b>울산울주(주거지)</b> ▷대지 2455평 ▷건물 445평 ▷감정가 18억2천 ▷매매가 8억 (협의후결정)	<b>전북완주 풍동 공장</b>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정가 135억 ▷매매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호이사 010-5879-0005    숙식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중원이사 010-8227-7759

###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 쌍촌동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대지 1413㎡(오피스텔 48세대건축가능)

㎡당 546,000원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순해연이사 010-9611-2817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일(지하)호프 분식60명, 원동형빌라(산수동, 백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대출 + 보증금공제후 실인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

###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족주택(원룸, 투룸, 소규모)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 자연농지 + 용도 :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저택(인근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용 4~2천 대도가 8~9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30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대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농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완료, 매대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농지지역 2397㎡(725평) 평당 96만원
- 공장 최고용도로 적합
- 비포장 자연농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의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평면 장성초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68949.co.kr

### 가은 부동산

#### 신창동 빌딩매매

-대 지 : 630평  
 -연건평 : 460평  
 -보증금 3억5500만원/월1600만원  
 -매매가 : 상담후 결정

#### 상무지구 건물매매

-대 지 : 200평  
 -연면적 : 150평  
 -보증금 : 1억5천만원  
 -월차임 : 1500만원 (부가세별도)  
 -매매금액 : 29억원

#### 주유소 매매 (동구)

-대 지 : 300평  
 -최고 매출  
 -매매가 상담후 결정

#### 침단단지 공장매매

-대 지 : 1000평  
 -공 장 : 300평  
 -매매가 상담후 결정

#### 투자자 모집니다

1억 - 5억 투자자 모집

상무지구 렌더피아 사거리  
 010-8289-8549

### 대인동상일부동산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내 및 시외선으로 호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원소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현 011-602-2532  
 (주)원동상일부동산, 대인동 상일부동산

### 첨 단 신창동 신가동

## 상가 건물

#### 파실분환영!

(8억 ~ 12억계약가능)

#### 《매수자 대가중!》

#### 광주원룸매매

원룸 파실분 매환영!

(매수자 다수 대가중)

####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익률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 광주 원룸 토지매매

파실분 → 빠른 계약가능! 사실분 → 원하는 땅 구해드립니다!

#### 우림공인중개사

일국지구 중심상가 밀집지역내 위치

010-3622-6076  
 062)576-8484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상가(매매)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억)
- 보성동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1,730만원(21억)
- 보성동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707만원(14억5천만)
-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 두암동7층건물 164평 건물액6000원(31억)
- 임대보증금 2억5천 원 월 500만원

#### 토 지(매매)

- (상무지구)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형가능,석당영업중)
- (상무지구)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화가 시가리코너)
- (상무지구)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유형가능)
- (상무지구)3,400㎡(약1,000평) 평당750만원(시정할) (회사유동,오피스텔등 적합)
- (동림지구)중주거지 운안-하남 간대보변4,470㎡(약1,352평) - 평당330만 (예산정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를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우편매너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현 011-609-5221  
 (상무지구 이마트 지하상가 1층)